

健康 및 Sports에 관한 大學生의 意識調查 研究

- 濟州大學生을 中心으로 -

李 世 衡

目 次

- | | |
|----------|-------------|
| I. 序 論 | II. 結果 및 考察 |
| II. 調査方法 | IV.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최근 국민 생활의 가치관은 많은 변천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로 인한 啓導로 上向되고, 또한 一日生活圈으로 인한 직접 見聞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享有만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곧 금전이나 재산보다도 애정, 우정 또는 가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산업사회는 기계화, 분업화,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반면 인간의 근육 활동의 각 부위와 운동 부족 현상이라는 역기능적인 면도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은 편리한 생활 가운데서도 餘暇를 善用해서 스포오츠에 전념하는 등 저마다의 건강 유지와 체력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과 스포오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국가와 사회 또는 개인 각자의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마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를 누리는 국민들은 각자 나름의 방향을 통해 이 욕구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각 계층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그 만족도는 어떠한고, 불만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국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기초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곧 건강 관리를 위한 스포오츠에 관한 특

별 지도가 없고, 다만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로 기울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본 연구는 Sport 및 健康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동향을 다각도로 명확히 분석 규명하여 대학생의 sport 활동 및 건강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파악 정리하고, 나아가서는 대학생의 健康 및 sport 보급 진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Ⅱ. 調 査 方 法

(1) 調査對象 : 男學生 300 명, 女學生 300 명 도합 600 명을 상대로 調査對象을 삼았다. 특히 조사의 편의를 위해 濟州大學校에 在學中인 학생을 대상하였던 바 정확한 應答生이 445 명(男子 : 250 명, 女子 : 195 명)을 해아렸다. 다만 응답자는 100 %였지만 그 대답이 불성실하고 또한 조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응답지가 155 매나 되었다. 이제 그 응답을 性別로 구분하여 反應 경향을 項目別로 고찰하였다.

(2) 調査期間 : 1983 年 5 月 10 日 ~ 20 日

(3) 調査方法 : 本 研究은 文獻研究와 質問紙法을 사용 하였으며, 質問紙에서 얻은 資料는 주로 濟州大學生의 健康 및 sports 에 관한 意識調査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질문지법에 위배되는 즉 2 중응답, 응답누락 등 질문지 처리 과정에서 사용 불가능한 응답지를 제외한 나머지 445 매를 최종응답 매수를 통해서 처리하였다.

한편 계산방법은 백분율 계산법에 의거해서 算出하였다.

Ⅲ. 結 果 및 考 察

1. 全體의 背景 分析 狀況

濟州大學生의 sports 및 健康에 對한 意識 動向을 調査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性別 年齡別이 이 研究에 直接的인 要素라고 생각되므로 項目別로 區分하여 그 實態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調査 對象者들의 背景調査에서 性別·年齡別을 보면 다음과 같다.

應答者 總 445 名 中 男學生이 250 名(56.18%), 女學生이 195 名(43.82%)이며 年齡別은 <表 1>과 같다.

<表 1> 性別·年齡別 배경 분포 상황

項目 性別	18 세	19 세	20 세	비 고
男 學 生	87名 (34.80%)	111名 (44.40%)	52名 (20.80%)	응답자가 上齡層에 오 를수록 적다는 점은 비록 임의추출방식이 라도 문제가 되고있다.
女 學 生	112名 (57.44%)	70名 (35.90%)	13名 (6.67%)	
計	199名 (44.72%)	181名 (40.67%)	65名 (14.61%)	

다만, 調查 對象學生의 保護者의 職業이나 學歷을 不問에 붙인 것은 對象者가 大學生이기 때
문에 주위 環境에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이며, 또한 自身의 意識構造를 調查함이 주
이기 때문이다.

2. 健康意識에 關한 狀況

(1) 健康을 해치는 原因

1) 질문 1 : 作業이 어려워서 健康을 해친다.

"作業이 어려워서 健康을 해친다."는 질문에 對해서 全體의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
가 32.36% (144名), "없다"가 67.64% (301名)이며 男女別로는 男學生은 250名 中 "있
다"가 30.40% (76名), "없다"가 69.60% (174名)이고 女學生은 總 195名 中 "있다"가
34.87% (68名), "없다"가 65.13% (127名)로 <表 2>와 같이 나타났다.

<表 2> "作業이 힘들어서 健康을 해친다."의 統計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76名 (30.40%)	174名 (69.60%)	作業이 힘들어 健康을 해치는 일은 成年層이라도 再考를 要 한다.
女 學 生	68名 (34.87%)	127名 (65.13%)	
計	144名 (32.36%)	301名 (67.64%)	

2) 질문 2 : 運動不足으로 健康을 해친 일.

"運動不足으로 健康을 해친다는 일"에 對해서 全體의으로는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
가 28.54% (127名), "없다"가 71.46% (318名)이며, 男女別로는 男學生은 250名 中 "있
다"가 13.20% (58名), "없다"가 76.80% (192名)이고, 女學生은 195名 中 "있다"가
35.38% (69名), "없다"가 64.62% (126名)으로 <表 3>과 같이 나타났다.

<表 3> “운동부족으로 건강을 해친 일”의 통계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58名 (13.20%)	192名 (76.80%)	入試등 기타 他意에 의한 作 業(심부름)으로 건강까지 해 치는 일은 지양해야겠다.
女 學 生	69名 (35.38%)	126名 (64.62%)	
計	127名 (28.54%)	318名 (71.46%)	

3) 질문 3 : 人間關係가 원만치 못해 健康을 해친 일.

“人間關係가 원만치 못해 健康을 해친 일”에 對해서는 全體적으로 總 445名中 “있다”가 26.92%(117名), “없다”가 73.71%(328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는 男學生은 “있다” 23.20%(58名), “없다” 76.80%(192名), 女學生은 “있다” 30.26%(59名), “없다” 69.74%(136名)으로 <表 4>와 같이 나타났다.

<表 4>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해 건강을 해친 일”의 통계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58名 (23.20%)	192名 (76.80%)	男·女間의 갈등, 그리고 交 友에 있어 健康을 해치는 일 이 없다는 應答이 많음은 좋 은 현상이다.
女 學 生	59名 (30.26%)	136名 (69.74%)	
計	117名 (26.92%)	328名 (73.71%)	

4) 질문 4 : 거주 環境이 나빠서 健康을 해친 일.

“거주 環境이 나빠서 健康을 해친 일”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中 “있다”가 18.20%(81名), “없다”가 81.80%(364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는 男學生은 “있다”가 19.60%(49名), “없다”가 80.40%(201名), 女學生은 “있다”가 16.41%(32名), “없다”가 83.59%(163名)으로 <表 5>와 같이 나타났다.

<表 5> “거주환경이 나빠서 건강을 해친 일”의 통계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49名 (19.60%)	201名 (80.40%)	운동 기구가 부실해서 健康을 해치는 일이 없다는 應答은 매 우 바람직하다.
女 學 生	32名 (16.41%)	163名 (83.59%)	
計	81名 (18.20%)	364名 (81.80%)	

(2) 自覺症狀

1) 질문 5 : 허리가 아픈 적이 많다.

"허리가 아픈 적이 많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47.19%(210名), "아니오"가 52.18%(235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42.80%(107名), "아니오"가 57.20%(143名), 女學生은 "예"가 52.82%(103名), "아니오"가 47.18%(92名)으로 <表 6>과 같이 나타났다.

<表 6> "허리가 아픈 적이 많다"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07名 (42.80%)	143名 (57.20%)	젊은 대학생 중 허리가 아픈 학생이 많다는 것은 國民體力 向上을 위해 큰 문제로 대두 된다.
女 學 生	103名 (52.82%)	92名 (47.18%)	
計	210名 (47.19%)	235名 (52.81%)	

2) 질문 6 : 어깨가 빠근하고 아픈 적이 많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39.78%(177名), "아니오"가 60.22%(268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35.60%(89名), "아니오"가 64.40%(161名), 女學生은 "예"가 45.19%(88名), "아니오"가 54.87%(107名)으로 <表 7>과 같이 나타났다.

<表 7> "어깨가 빠근하고 아픈날이 많다"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89名 (35.60%)	161名 (64.40%)	젊은 나이로 비교적 부정적임 은 좋은 결과지만 보다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
女 學 生	88名 (45.19%)	107名 (54.87%)	
計	177名 (39.78%)	268名 (60.22%)	

3) 질문 7 : 눈이 피로하기 쉽다.

"눈이 피로하기 쉽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59.10%(263名), "아니오"가 40.90%(182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70.00%(175名), "아니오"가 30.00%(75名), 女學生은 "예"가 45.13%(88名), "아니오"가 54.87%(107名)으로 <表 8>과 같이 나타났다.

<表 8> “눈이 피로하기 쉽다”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75名 (70.00%)	75名 (30.00%)	視力 保護에 積極的인 施策이 요망된다. 특히 教材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다.
女 學 生	88名 (45.13%)	107名 (54.87%)	
計	263名 (59.10%)	182名 (40.90%)	

4) 질문 8 : 胃腸 狀態가 나쁘다.

“胃腸 狀態가 나쁘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56.63%(252名), “아니오”가 43.37%(193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42.80%(107名), “아니오”가 57.20%(143名), 女學生은 “예”가 74.36%(145名), “아니오”가 25.64%(50名)으로 <表 9>와 같이 나타났다.

<表 9> “胃腸狀態가 나쁘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07名 (42.80%)	143名 (57.20%)	學生들을 위한 中食 공급에 보 다 신경을 쓰는 政策이 必要하 다.
女 學 生	145名 (74.36%)	50名 (25.64%)	
計	252名 (56.63%)	193名 (43.37%)	

5) 질문 9 : 1個月에 1回 以上 頭痛이 있다.

“1個月에 1回 以上 頭痛이 있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445名 가운데서 “예”가 59.33%(264名), “아니오”가 40.67%(181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52.80%(132名), “아니오”가 47.20%(118名), 女學生은 “예”가 67.69%(132名), “아니오”가 32.31%(63名)으로 <表 10>과 같이 나타났다.

<表 10> “1개월에 1회 이상 두통이 있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32名 (52.80%)	118名 (47.20%)	건강관리가 정상치 못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시정책이 시급 하다.
女 學 生	132名 (67.69%)	63名 (32.31%)	
計	264名 (59.33%)	181名 (40.67%)	

6) 질문 10 : 뚱뚱한 느낌이 든다.

“뚱뚱한 느낌이 든다”에 대해서 全體적으로 445名 가운데서 “예”가 38.43%(171名), “아니오”가 61.57%(274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16.40%(41名), “아니오”가 83.60%(209名), 女學生은 “예”가 66.67%(130名), “아니오”가 33.33%(65名)으로 <表 11>과 같이 나타났다.

<表 11> “뚱뚱한 느낌이 든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41名 (16.40%)	209名 (83.60%)	나도 그럴까 하는 肥滿症에 對한 공포에 앞서 參與된 運動을 시켜야겠다.
女 學 生	130名 (66.67%)	65名 (33.33%)	
計	171名 (38.43%)	274名 (61.57%)	

7) 질문 11 : 야윈 느낌이 든다.

“야윈 느낌이 든다”에 대해서 全體적으로 445名 가운데서 “예”가 44.94%(200名), “아니오”가 55.06%(245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38.80%(97名), “아니오”는 61.20%(153名), 女學生은 “예”가 52.82%(103名), “아니오”는 47.18%(92名)으로 <表 12>와 같이 나타났다.

<表 12> “야윈 느낌이 든다”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97名 (38.80%)	153名 (61.20%)	특히 女학생을 위한 特別지도가 必要하다.
女 學 生	103名 (52.82%)	92名 (47.18%)	
計	200名 (44.94%)	245名 (55.06%)	

8) 질문 12 : 高血壓 기미가 있다.

“高血壓 기미가 있다”에 대해서 全體적으로 445名 가운데서 “예”가 23.82%(106名), “아니오”가 76.18%(339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子가 “예”는 22.80%(47名), “아니오”가 77.20%(198名), 女子는 “예”가 30.26%(59名), “아니오”가 69.74%(141名)으로 <表 13>과 같이 나타났다.

〈表 13〉 “高血壓 기미가 있다”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47名 (22.80%)	198名 (77.20%)	근래 가속적으로 번지는 고혈압에 관한 인식이 없음은 다행한 일이다.
女 學 生	59名 (30.26%)	141名 (69.74%)	
計	106名 (23.82%)	339名 (76.18%)	

9) 질문 13 : 귀울림(耳鳴)이 있다.

“귀울림”이 있다”에 대해서 全體적으로 445名 가운데서 “예”가 28.31%(126名), “아니오”가 71.69%(319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33.20%(83名), “아니오”가 66.80%(167名), 女子는 “예”가 22.05%(43名), “아니오”가 77.95%(152名)으로 <表 14>와 같이 나타났다.

〈表 14〉 “귀울림이 있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83名 (33.20%)	167名 (66.80%)	피로도가 느껴지지 않는 점은 食生活 개선의 效果로 본다.
女 學 生	43名 (22.05%)	152名 (77.95%)	
計	126名 (28.31%)	319名 (71.69%)	

10) 질문 14 : 心臟에 대해서

“心臟에 대해서” 全體적으로 445名 가운데서 “强하다”가 53.48%(238名), “弱하다”가 46.52%(207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强하다”가 56.00%(140名), “弱하다”가 44.00%(110名), 女學生은 “强하다”가 50.26%(98名), “弱하다”가 49.74%(97名)으로 <表 15>와 같이 나타났다.

〈表 15〉 “심장에 대해서”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40名 (56.00%)	110名 (44.00%)	심장병의 무서움을 의식한 응답으로 안다. 계몽이 必要하다.
女 學 生	98名 (50.26%)	97名 (49.74%)	
計	238名 (53.48%)	207名 (46.52%)	

(3) 綜合的인 自己 診斷

1) 질문 15 : 쉽게 피로하고 자주 안절부절 한다.

“쉽게 피로하고 자주 안절부절 한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445名 가운데서 “예”가 56.40%(251名), “아니오”가 43.60%(194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56.80%(142名), “아니오”가 43.20%(108名), 女學生은 “예”가 55.90%(109名), “아니오”가 44.10%(86名)으로 <表 16>과 같이 나타났다.

<表 16> “쉽게 피로하고 자주 안절부절 한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42名 (56.80%)	108名 (43.20%)	학업성적에 對한 부담감이 작 용하지 않았는가 한다.
女 學 生	109名 (55.90%)	86名 (44.10%)	
計	251名 (56.40%)	194名 (43.60%)	

2) 질문 16 : 生活이 希望的이고 食慾이 旺盛하고 깊은 잠을 잘잔다.

“生活이 希望的이고 食慾이 旺盛하고 깊은 잠을 잘잔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62.47%(278名), “아니오”가 37.53%(167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64.80%(162名), “아니오”가 35.20%(88名)이고, 女學生은 “예”가 59.49%(116名), “아니오”가 40.51%(79名)으로 <表 17>과 같이 나타났다.

<表 17> “生活이 希望的, 食慾이 旺盛, 깊은 잠을 잔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62名 (64.80%)	88名 (35.20%)	진학을 위한 부담감의 작용이나 부정적인 응답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女 學 生	116名 (59.49%)	79名 (40.51%)	
計	278名 (62.47%)	167名 (37.53%)	

3) 질문 17 : 종종 醫師의 指示를 받음

“종종 醫師의 指示를 받음”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24.49%(109名), “아니오”가 75.51%(336名)이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35.20%(63名), “아니오”가 64.80%(187名)이고, 女學生은 “예”가 23.59%(46名), “아니오”가 76.41%(149名)으로 <表 18>과 같이 나타났다.

<表 18> “중증 의사의 지시를 받음”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63名(35.20%)	187名(74.80%)	아직 의료법에 대한 관심도가
女 學 生	46名(23.59%)	149名(76.41%)	부실하다는 결과로 역시 계몽
計	109名(24.49%)	336名(75.51%)	이 필요하다.

(4) 健康 對策

1) 질문 18 : 몸을 청결히 하고 있다.

“몸을 청결히 하고 있다”에 對해서 全體의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85.84%(382名), “아니오”가 14.16%(63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82.40%(206名), “아니오”가 17.60%(44名), 女學生은 “예”가 90.26%(176名), “아니오”가 9.74%(19名)으로 <表 19>와 같이 나타났다.

<表 19> “몸을 청결히 하고 있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206名(82.40%)	44名(17.60%)	건강에 對한 관심도가 무척 높
女 學 生	176名(90.26%)	19名(9.74%)	아졌다는 실증이다.
計	382名(85.84%)	63名(14.16%)	

2) 질문 19 : 이른 아침에 몸을 움직인다.

“이른 아침에 몸을 움직인다”에 對해서 全體의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46.52%(207名), “아니오”가 53.48%(238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44.40%(111名), “아니오”가 55.60%(139名), 女學生은 “예”가 49.23%(96名), “아니오”가 50.77%(99名)으로 <表 20>과 같이 나타났다.

<表 20> “이른 아침에 몸을 움직인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11名(44.40%)	139名(55.60%)	관심도만 높았지 실천이 없다
女 學 生	96名(49.23%)	99名(50.77%)	는 실증이라고 본다.
計	207名(46.52%)	238名(53.48%)	

3) 질문 20 : 健康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기분전환을 한다.

“健康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기분전환을 한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예”가 24.72%(110名), “아니오”가 75.28%(335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23.20%(58名), “아니오”가 76.80%(192名), 女學生은 “예”가 26.67%(52名), “아니오”가 73.33%(143名)으로 <表 21>과 같이 나타났다.

<表 21>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기분 전환”의 통계

項 目 性 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58名(23.20%)	192名(76.80%)	아침 운동도 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된다.
女 學 生	52名(26.07%)	143名(73.33%)	
計	110名(24.72%)	335名(75.28%)	

4) 질문 21 : 睡眠 時間을 充分히 取하고 있다.

“睡眠 時間을 充分히 取하고 있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예”가 81.35%(362名), “아니오”가 18.65%(83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84.40%(211名), “아니오”가 15.60%(39名), 女學生은 “예”가 77.44%(151名), “아니오”가 22.56%(44名)으로 <表 22>와 같이 나타났다.

<表 22> “수면 시간을 충분히 취하고 있다”의 통계

項 目 性 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211名(84.40%)	39名(15.60%)	좋은 현상이다. 수면이 내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장려를 요 한다.
女 學 生	151名(77.44%)	44名(22.56%)	
計	362名(81.35%)	83名(18.65%)	

5) 질문 22 : 健康을 유지하기 爲해 營養을 考慮하여 食事하고 있다.

“健康을 유지하기 爲해 營養을 考慮하여 食事하고 있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예”가 25.39%(113名), “아니오”가 74.61%(332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21.60%(54名), “아니오”가 78.40%(196名), 女學生은 “예”가 30.26%(59名), “아니오”가 69.74%(136名)으로 <表 23>과 같이 나타났다.

<表 23>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을 고려하여 식사한다”의 통계

項目 性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54名(21.60%)	196名(78.40%)	아직 젊기 때문에 무관함의 표 시로 안다.
女 學 生	59名(30.26%)	136名(69.74%)	
計	113名(25.39%)	332名(74.61%)	그러나 지도는 필요하다.

6) 질문 23 : 藥을 服用하고 있다.

“藥을 服用하고 있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25.17%(112名), “아니오”가 74.83%(333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27.20%(68名), “아니오”가 72.80%(182名)이고, 女學生은 “예”가 22.56%(44名), “아니오”가 77.44%(151名)으로 <表 24>와 같이 나타났다.

<表 24> “藥을 복용하고 있다”의 統計

項目 性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68名(27.20%)	182名(72.80%)	좋은 현상이다. 약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심사는 고쳐 주어야 마땅하다.
女 學 生	44名(22.56%)	151名(77.44%)	
計	112名(25.17%)	333名(74.83%)	

7) 질문 24 : 信仰에 힘쓰고 있다.

“信仰에 힘쓰고 있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24.49%(109名), “아니오”가 75.51%(336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16.40%(41名), “아니오”가 83.60%(209名)이고, 女學生은 “예”가 34.87%(68名), “아니오”가 65.13%(127名)으로 <表 25>와 같이 나타났다.

<表 25> “신앙에 힘쓰고 있다”의 統計

項目 性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41名(16.40%)	20名(83.60%)	신앙에 무관함은 아직 일가를 이루지 않고 젊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女 學 生	68名(34.87%)	127名(65.13%)	
計	109名(24.49%)	336名(75.51%)	

3. Sport 意識에 關한 狀況

(1) 社會的인 즐거움

1) 질문 25 : 解放感

“解放感”에 對해서 全體의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예”가 77.98%(347 名), “아니오”가 22.02%(98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82.40%(206 名), “아니오”가 17.60%(44 名), 女學生은 “예”가 72.31%(141 名), “아니오”가 27.69%(54 名)으로 <表 26>과 같이 나타났다.

<表 26>

“解放感”의 統計

項 目 性 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206 名(82.40%)	44 名(17.60%)	꺼리낌이 없다는 점은 보람차다. 그러나 소수라고 해도 문제는 된다.
女 學 生	141 名(72.31%)	54 名(27.69%)	
計	347 名(77.98%)	98 名(20.02%)	

2) 질문 26 : 相對에 對한 즐거움

“相對에 對한 즐거움”에 對해서 全體의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예”가 77.75%(346 名), “아니오”가 22.25%(99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80.40%(201 名), “아니오”는 19.40%(49 名), 女學生은 “예”가 74.36%(145 名), “아니오”는 25.64%(50 名)으로 <表 27>과 같이 나타났다.

<表 27>

“相對에 對한 즐거움”의 統計

項 目 性 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201 名(80.40%)	49 名(19.60%)	男·女 交友를 通한 自由로운 선택이 작용했다고 본다.
女 學 生	145 名(74.36%)	50 名(25.64%)	
計	346 名(77.75%)	99 名(22.25%)	

3) 질문 27 : 치열한 競爭心

“치열한 競爭心”에 對해서는 全體의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있다”가 53.93%(240 名), “없다”가 46.07%(205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이 “있다”는 54.80%(137 名), “없다”는 45.20%(113 名), 女學生은 “있다”가 52.82%(103 名), “없다”가 47.18%(92 名)으로 <表 28>과 같이 나타났다.

〈表 28〉 “치열한 경쟁심”의 통계

項目 性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37 名 (54.80 %)	113 名 (45.20 %)	경쟁은 곧 삶인데 응답의 정확
女 學 生	103 名 (52.82 %)	92 名 (47.18 %)	성이 믿기지 않는다.
計	240 名 (53.93 %)	205 名 (46.07 %)	

4) 질문 28 : 同僚와의 交歡

“同僚와의 交歡”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있다”가 87.64 % (390 名), “없다”가 12.36 % (55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는 91.20 % (228 名), “없다”는 8.80 % (22 名), 女學生은 “있다”가 83.08 % (162 名), “없다”는 16.92 % (33 名)으로 <表 29>와 같이 나타났다.

〈表 29〉 “同僚와의 交歡”의 統計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228 名 (91.20 %)	22 名 (8.80 %)	동료와의 사귀이 적다는 것은
女 學 生	162 名 (83.08 %)	33 名 (16.92 %)	참으로 한심스럽다.
計	390 名 (87.64 %)	55 名 (12.36 %)	시정책이 시급하다.

5) 질문 29 : 좋아하는 選手와 對面 接觸

“좋아하는 選手와 對面 接觸”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있다”가 20.22 % (90 名), “없다”가 79.78 % (355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22.00 % (55 名), “없다”는 78.00 % (195 名), 女學生은 “있다”가 17.95 % (35 名), “없다”가 82.05 % (160 名)으로 <表 30>과 같이 나타났다.

〈表 30〉 “좋아하는 선수와 대면 접촉”의 통계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55 名 (22.00 %)	195 名 (78.00 %)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영향보다
女 學 生	35 名 (17.95 %)	160 名 (82.05 %)	T.V 등을 통한 접촉을 고려해
計	90 名 (20.22 %)	355 名 (79.78 %)	야겠다.

6) 질문 30 : 他人의 칭찬

“他人의 칭찬”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있다”가 59.33%(264 名), “없다”는 40.67%(181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60.40%(151 名), “없다”가 39.60%(99 名), 女學生은 “있다”가 57.95%(113 名), “없다”가 42.05%(82 名)으로 <表 31>과 같이 나타났다.

<表 31> “타인의 칭찬”의 통계

項 目 性 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51 名 (60.40%)	99 名 (39.60%)	남의 칭찬이 없다는 것은 師 弟間의 도타운 지도를 요한다.
女 學 生	113 名 (57.95%)	82 名 (42.05%)	
計	264 名 (59.33%)	181 名 (40.67%)	

7) 질문 31 : 日常生活로부터의 도피

“日常生活로부터의 도피”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있다”가 37.08%(165 名), “없다”는 62.92%(280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37.60%(94 名), “없다”가 62.40%(156 名), 女學生은 “있다”가 36.41%(71 名), “없다”가 63.59%(124 名)으로 <表 32>와 같이 나타났다.

<表 32> “日常生活로부터의 도피”의 통계

項 目 性 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94 名 (37.60%)	156 名 (62.40%)	일상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은 그만큼 현실적인 응답으로 본 다.
女 學 生	71 名 (36.41%)	124 名 (63.59%)	
計	165 名 (37.08%)	280 名 (62.92%)	

8) 질문 32 : 스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交友 關係 形式

“스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交友 關係 形成”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있다”가 74.61%(332 名), “없다”가 25.39%(113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73.20%(183 名), “없다”가 26.80%(67 名), 女學生은 “있다”가 76.41%(149 名), “없다”가 23.59%(46 名)으로 <表 33>과 같이 나타났다.

<表 33> “새로운 교우 관계 형성”의 통계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83名 (73.20%)	67名 (26.80%)	大學生이기 때문에 男·女 관계 가 자유로와 졌다는 증표이다.
女 學 生	149名 (76.41%)	46名 (23.59%)	
計	332名 (74.61%)	113名 (25.39%)	

9) 질문 33 : 運動競技를 通해 應援과의 一致感

“運動競技를 通해 應援과의 一致感”에 對해서 全體의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가 74.83%(333名), “없다”가 25.17%(112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76.00%(190名), “없다”는 24.00%(60名), 女學生은 “있다”가 73.33%(143名), “없다”가 26.67%(52名)으로 <表 34>와 같이 나타났다.

<表 34> “應援과의 一致感”의 통계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90名 (76.00%)	60名 (24.00%)	一致感이 없다는 點은 그만큼 경기가 자기와 밀접하지 못했 음을 말한다.
女 學 生	143名 (73.33%)	52名 (26.67%)	
計	233名 (74.83%)	112名 (25.17%)	

(2) 個人的인 즐거움

1) 질문 34 : 全力을 다하여 最後까지 行하여 目的을 達成

“全力을 다하여 最後까지 行하여 目的을 達成”에 對하여 全體의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63.82%(284名), “아니오”가 36.18%(161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67.60%(169名), “아니오”는 32.40%(81名), 女學生은 “예”가 58.97%(115名), “아니오”는 41.03%(80名)으로 <表 35>와 같이 나타냈다.

<表 35> “全力을 다하여 最後까지 行하여 目的을 達成”의 統計

項目 性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69名 (67.60%)	81名 (32.40%)	소망을 쟁취하려는 굳은 의지 가 돋보여 희망적이다.
女 學 生	115名 (58.97%)	80名 (41.03%)	
計	284名 (63.82%)	161名 (36.18%)	

2) 질문 35 : 스릴의 즐거움

“스릴의 즐거움”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가 70.11%(312名), “없다”가 29.89%(133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70.80%(177名), “없다”가 29.20%(73名), 女學生은 “있다”가 69.23%(135名), “없다”가 30.77%(60名)으로 <表 36>과 같이 나타났다.

<表 36> “스릴의 즐거움”의 통계

性 別 \ 項 目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77名 (70.80%)		73名 (29.80%)		경쾌감은 자신과 연관되고 또	
女 學 生	135名 (69.23%)		60名 (30.77%)		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증	
計	312名 (70.11%)		133名 (29.89%)		조다.	

3) 질문 36 : 완속한 技術

“완속한 技術”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23.60%(105名), “아니오”가 76.40%(340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27.60%(69名), “아니오”가 72.40%(181名), 女學生은 “예”가 18.46%(36名), “아니오”가 81.54%(159名)으로 <表 37>과 같이 나타났다.

<表 37> “완속한 기술”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69名 (27.60%)	181名 (72.40%)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이기 때			
女 學 生	36名 (18.46%)	159名 (81.54%)	문에 당연한 응답으로 안다.			
計	105名 (23.60%)	340名 (76.40%)				

4) 질문 37 : 勝負慾

“勝負慾”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가 65.17%(290名), “없다”가 34.83%(155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65.60%(164名), “없다”는 34.40%(86名), 女學生은 “있다”가 64.62%(126名), “없다”는 35.38%(69名)으로 <表 38>과 같이 나타났다.

〈表 38〉 “勝負慾”의 統計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64 名 (65.60%)	86 名 (34.40%)	승부욕이 없다는 응답자가 적
女 學 生	126 名 (64.62%)	69 名 (35.38%)	지 않다는 것은 지역적인 영향
計	290 名 (65.17%)	155 名 (34.83%)	인지도 모른다.

(3) 스포츠에 依한 損失

1) 질문 38 : 冒險心

“冒險心”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있다”가 63.37% (282 名), “없다”가 36.63% (163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66.00% (165 名), “없다”가 34.00% (85 名), 女學生은 “있다”가 60.00% (117 名), “없다”가 40.00% (78 名)으로 <表 39>와 같이 나타났다.

〈表 39〉 “冒險心”의 統計

項目 性別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65 名 (66.00%)	85 名 (34.00%)	모험심이 많은 점은 섬이라는
女 學 生	117 名 (60.00%)	78 名 (40.00%)	점에 깊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計	282 名 (63.37%)	163 名 (36.63%)	

2) 질문 39 : 스포츠에는 自己도 모르는 危險이 따른다.

“스포츠에는 自己도 모르는 危險이 따른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 名 가운데서 “예”가 65.17% (290 名), “아니오”가 34.83% (155 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67.20% (158 名), “아니오”가 32.80% (82 名), 女學生은 “예”가 62.56% (132 名), “아니오”가 37.44% (73 名)으로 <表 40>과 같이 나타났다.

〈表 40〉 “스포츠에는 自己도 모르는 危險이 따른다”의 統計

項目 性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58 名 (67.20%)	82 名 (32.80%)	위험을 무릅쓴 프로경기물 자
女 學 生	132 名 (62.56%)	73 名 (37.44%)	주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計	290 名 (65.17%)	155 名 (34.83%)	

3) 질문 40 : 스포츠를 함으로써 過勞에 빠진 일

“스포츠를 함으로써 過勞에 빠진 일”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가 55.73%(248名), “없다”가 44.27%(197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57.20%(143名), “없다”가 42.80%(107名), 女學生은 “있다”가 53.85%(105名), “없다”가 46.15%(90名)으로 <表 41>과 같이 나타났다.

<表 41> “스포츠를 함으로써 過勞에 빠진 일”의 통계

性 別 \ 項 目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43名 (57.20 %)		107名 (42.80 %)		스포츠를 건강관리로 알지	
女 學 生	105名 (53.85 %)		90名 (46.15 %)		않는 層面에서 오는 결과라	
計	248名 (55.73 %)		197名 (44.27 %)		하겠다.	

4) 질문 41 : 스포츠에 熱中하면 學業 成績이 떨어진다.

“스포츠에 熱中하면 學業 成績이 떨어진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27.87%(124名), “아니오”가 72.13%(321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24.40%(61名), “아니오”는 75.60%(189名), 女學生은 “예”가 32.31%(63名), “아니오”가 67.69%(132名)으로 <表 42>와 같이 나타났다.

<表 42> “스포츠에 熱中하면 學業 成績이 떨어진다”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61名 (24.40 %)	189名 (75.60 %)	스포츠는 성적을 올리기 위			
女 學 生	63名 (32.31 %)	132名 (67.69 %)	한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사			
計	124名 (27.87 %)	321名 (72.13 %)	실을 인식시키기 필요하다.			

5) 질문 42 : 스포츠는 恐怖感을 주고 마음에 傷處를 준다.

“스포츠는 恐怖感을 주고 마음에 傷處를 준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45.17%(201名), “아니오”가 54.83%(244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46.00%(115名), “아니오”는 54.00%(135名), 女學生은 “예”가 44.10%(86名), “아니오”가 55.90%(109名)으로 <表 43>과 같이 나타났다.

<表 43> “스포츠에는 공포감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15名 (46.00 %)	135名 (54.00 %)	권투와 같은 특별한 영화때문에 공포감을 갖는 듯하다.
女 學 生	86名 (44.10 %)	109名 (55.90 %)	
計	201名 (45.17 %)	244名 (54.83 %)	시정이 필요하다.

6) 질문 43 : 스포츠에는 羞恥心과 關係되는 것이 없다.

“스포츠에는 羞恥心과 關係되는 것이 없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56.85 % (253名), “아니오”가 43.15 % (192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56.00 % (140名), “아니오”가 44.00 % (110名), 女學生은 “예”가 57.95 % (113名), “아니오”가 42.05 % (82名)으로 <表 44>와 같이 나타났다.

<表 44> “스포츠에는 수치심과 關係되는 것이 없다”의 통계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40名 (56.00 %)	110名 (44.00 %)	승부를 초월하는 스포츠 정신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女 學 生	113名 (57.95 %)	82名 (42.05 %)	
計	253名 (56.85 %)	192名 (43.15 %)	

7) 질문 44 : 勝利를 意識하면 利己의이기 쉽다.

“勝利를 意識하면 利己의이기 쉽다”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62.47 % (278名), “아니오”가 37.53 % (167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59.20 % (148名), “아니오”가 40.80 % (102名), 女學生은 “예”가 66.67 % (130名), “아니오”가 33.33 % (65名)으로 <表 45>와 같이 나타났다.

<表 45> “勝利를 意識하면 利己의이기 쉽다”의 統計

性 別 \ 項 目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48名 (59.20 %)	102名 (40.80 %)	승리가 전부라는 편벽된 생각의 표시로 아나 이기려면 도리가 없다.
女 學 生	130名 (66.67 %)	65名 (33.33 %)	
計	278名 (62.47 %)	167名 (37.53 %)	

8) 질문 45 : 스포츠맨은 虛榮心을 높게 할 危險이 있다.

“스포츠맨은 虛榮心을 높게 할 危險이 있다”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예”가 43.37%(193名), “아니오”가 56.63%(252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예”가 45.20%(113名), “아니오”가 54.80%(137名), 女學生은 “예”가 41.03%(80名), “아니오”가 58.97%(115名)으로 <表 46>과 같이 나타났다.

<表 46> “스포츠맨은 虛榮心을 높게 할 危險이 있다”의 統計

項 目 性 別	예	아 니 오	비 고
男 學 生	113名 (45.20%)	137名 (54.80%)	프로경기가 빚은 나쁜 영향이
女 學 生	80名 (41.03%)	115名 (58.97%)	다. 건강을 위한 스포츠가
計	193名 (43.37%)	252名 (56.63%)	시급히 요망된다.

(4) 過去의 스포츠 經驗

1) 질문 46 : 國民學校 때 놀이 場所

“國民學校 때 놀이 場所”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自然”이 64.27%(286名), “市街地”가 35.73%(159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自然”이 60.00%(150名), “市街地”가 40.00%(100名), 女學生은 “自然”이 69.74%(136名), “市街地”가 30.26%(59名)으로 <表 47>과 같이 나타났다.

<表 47> “國民學校 때 놀이 場所”의 統計

項 目 性 別	自 然	市 街 地	비 고
男 學 生	150名 (60.00%)	100名 (40.00%)	별다른 운동장 시설이 없었다
女 學 生	136名 (69.74%)	59名 (30.26%)	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응답이
計	286名 (64.27%)	159名 (35.73%)	다.

2) 질문 47 : 學校 時節 運動部에서 活動한 經驗

“學校 時節 運動部에서 活動한 經驗”에 對해서 全體적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가 35.73%(159名), “없다”가 64.27%(286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41.20%(103名), “없다”가 58.80%(147名), 女學生은 “있다”가 28.72%(56名) “없다”가 71.28%(139名)으로 <表 48>과 같이 나타났다.

<表 48> “學校時節 運動部에서 活動한 經驗”의 統計

性 別 \ 項 目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03名	(41. 20 %)	147名	(58. 80 %)	운동부는 공부와는 외면하는	
女 學 生	56名	(28. 72 %)	139名	(71. 28 %)	곳으로 오인하고 있는 계단이	
計	159名	(35. 73 %)	286名	(64. 27 %)	분식돼야겠다.	

3) 질문 48 : 스포오즈 競技를 해 본 經驗

“스포츠오즈 競技를 해 본 經驗”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가 57.30 % (255名), “없다”가 42.70 % (190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52.80 % (132名), “없다”가 47.20 % (118名), 女學生은 “있다”가 63.08 % (123名), “없다”가 36.92 % (72名)으로 <表 49>와 같이 나타났다.

<表 49> “스포츠오즈 競技를 해 본 經驗”의 統計

性 別 \ 項 目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32名	(52. 80 %)	118名	(47. 20 %)	여학생의 응답은 좋은 자료라	
女 學 生	123名	(63. 08 %)	72名	(36. 92 %)	하겠다. 여자 선수가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세상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計	255名	(57. 30 %)	190名	(42. 70 %)		

4) 질문 49 : 體育 指導者에게 技術 指導를 받은 일

“體育 指導者에게 技術 指導를 받은 일”에 對해서 全體的으로 總 445名 가운데서 “있다”가 39.33 % (175名), “없다”가 60.67 % (270名)으로 나타났고,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은 “있다”가 44.40 % (111名), “없다”가 55.60 % (139名), 女學生은 “있다”가 32.82 % (64名), “없다”가 67.18 % (131名)으로 <表 50>과 같이 나타났다.

<表 50> “體育 指導者에게 技術 指導를 받은 일”의 統計

性 別 \ 項 目	있	다	없	다	비	고
男 學 生	111名	(44. 40 %)	139名	(55. 60 %)	지금도 보급이 됐고, 우리 제주	
女 學 生	64名	(32. 82 %)	131名	(67. 18 %)	에서 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는	
計	175名	(39. 33 %)	270名	(60. 67 %)	사실부터 자부시켜야겠다.	

IV.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統計를 곁들여 記述한 바대로 濟州大學生의 健康 및 스포츠에 對한 意識 調查를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다만, 이 調查 統計는 全體 男·女學生의 總計가 아닌만큼 한갓 參考資料라고 본다.

1. 健康意識

(1) 男女學生들의 健康을 해치는 主된 原因은 “作業이 어려워 健康을 해친다” 32.36% “運動不足”으로가 28.54%, “人間關係가 원만치 못해서” 26.92%, “거주環境이 나빠서”가 18.20%이다.

(2) 自覺 症狀으로는 “한달에 1회 以上 頭痛이 있다”가 59.33%, “눈이 피로하다” 59.10%, “胃腸 狀態가 나쁘다” 56.63%, “허리가 아픈 적이 많다” 47.19% 順으로 나타났다.

(3) 自己 綜合的인 診斷으로는 “生活이 希望的이고 食慾이 旺盛하고 깊은 잠을 잘잔다”가 62.47%, “쉽게 피로하고 자주 安절부절한다” 56.40%, “종종 醫師의 指示를 받음”이 24.49% 順으로 나타났다.

(4) 健康 對策으로는 “몸을 청결히 하고 있다” 85.84%, “수면 시간을 充分히 取하고 있다”가 81.35%, “이른 아침에 몸을 움직인다” 46.52% 順으로 專門的이 아닌 一般的이고 常識的인 方法을 取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포츠 意識

(1) 社會的 즐거움은 “同僚와의 交歡”이 87.64%, “解放感” 77.98%, “相對에 對한 勝利感” 77.75% “應援과의 一致感” 74.83%, “새로운 交友關係 形成” 74.61% 等の 順으로 나타났다.

(2) 個人的인 즐거움으로는 “스릴의 즐거움” 70.11%, “勝負慾” 65.17%, “全力을 다 하여 最後까지 行하여 目的을 達成” 63.82% 等の 順으로 나타났다.

(3) 스포츠에 依한 損失로는 “스포츠에는 自己도 모르는 危險이 따른다” 65.17%, “勝利하는데 너무 熱中하다 보면 利己的이 되기 쉽다” 62.47%, “스포츠에는 羞恥心과 關

係되는 것이 없다” 56.85%, “스포츠를 함으로써 過勞에 빠지는 일이 있다” 55.73% 등이 順으로 나타났다.

3. 스포츠 經驗

(1) 國民學校 놀이 場所는 “自然” 64.27%였으며,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2) “學校時節 運動部 活動 經驗”은 35.73%로 나타났고, “競技 經驗”은 57.30%, “스포츠 技術 指導를 받은 일”에는 39.33%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點을 감안할 때,

- ① 學令期 直後의 運動生活의 감소는 健康 障礙에 主要한 要因이 되고 있고,
- ② 意識的으로는 健康하지만 健康의 幅이 좁고, 또 生活 活動 範圍가 限定되어 있고,
- ③ 스포츠 活動을 安全하게 實施 할 수 있는 場所와 거기에 따르는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過勞에 빠지지 않도록 適切한 指導가 要望되고,
- ④ 스포츠의 勝敗에 對한 올바른 態度를 갖도록 指導 제공해야 할 것이며,
- ⑤ 學校時節 스포츠를 通하여 指導力 및 創意性을 涵養 할 수 있도록 指導가 要望된다.

따라서 健康管理는 매스컴을 通해 외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實際 앞장을 서는 指導가 絶실하며, 運動을 爲한 運動이 아니라 心身의 鍛鍊에 力點을 두어 勝負感을 造장하는 競技가 아닌 適切한 啓導가 絶실하다고 본다. 特히 大學生은 國家의 防牌요, 民族의 先鋒이라는 點을 감안하여 體育時間은 理論爲主보다도 實用爲主로 教導함이 問題點으로 浮上하고 있음이 이 調査를 通해 나타났다.

Summary

**A Research on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Health and Spor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udent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

Lee Sei-hyoung

1. Regardless of sex,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their everyday work-lead including school life as being the main factor to injure their health.
2. The headache was cited as subjective symptom. The frequency they have had the headache was averaged more than 1 time a month.
3. However, it is interesting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evaluated themselves as being ambitious in their everyday life, being keen in their appetite, and being deep in their sleep.
4.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very careful in keeping their body clean as a main countermeasure of their health.
5. "Social interaction with friends" was cited as a main social pleasure of sports.
6. On the contrary, "thrill" was cited as a main individual pleasure of sports.
7. "The unidentified potential danger" was cited as the main problem of sports.
8. When they were primary students, "natural field" was the main place to enjoy their sports.

The findings outlined above would suggest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The decrease of absolute times in the sports would become a main obstacle to the health especially for the students of school age. Even though they evaluate themselves as being healthy, the range of their actual health is limited to some narrow areas, the range of their activities are also very limited. These would mean that it is required to consider a countplan for the safe sports activities, to produce the capable sports leader in order to prevent the students' health from being excessive activities. In addition, it would be required to enlighten the sports leaders in order the students to have an reasonable attitudes toward the final consequence of sports, and the sports should be operated in terms that the students are able to produce their leaderships and initiativeness.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suggested above, the management of students' health should not be a slogan itself through mass media, rather should be actually instructive. Also, the sports should not be a sports itself to stimulate the victory and defeat, rather should put emphasis on the training of body and spirit.